

# 2024-1 TU graz 교환학생 파견 후기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2018-10160 김병식

## 1. 소개

안녕하세요. 이번 2024-1학기 오스트리아 그라츠에 위치한 TU graz(그라츠 공과대학)로 교환학생 신분으로 파견 다녀온 김병식이라고 합니다. 교환학생으로 많이들 가는 타 국가들에 비해 물가가 크게 비싸지 않은 점, 교환학생을 위한 활동이나 프로그램들이 잘 마련되어 있는 점, 유럽 중앙에 위치해 교통에 크게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도 주변을 쉽게 여행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마음에 들어 오스트리아로의 파견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 생활을 준비하면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국제협력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후기들을 많이 참고하면서 도움을 받았기에, 제 후기 또한 앞으로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학우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라츠 Schlossberg 언덕 위



근처 호수(gruner see)

## 2. 준비

### 2.1. 지원

기한 내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국제협력실을 통해 지원을 마치고 최종 파견자로 선정이 되면, TU graz에서 안내 메일이 옵니다. 이 때를 기점으로 TU graz 현지 교환학생 지원 부서 쪽과 본격적인 소통을 하게 되실겁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파견자로 자체 선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TU graz의 교환학생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해서 승인을 받아야(다만 서울대학교 자체 요구 사항을 맞추면 거절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정이 됩니다. 다행히 메일을 통해 이들 행정적 절차에 대한 가이드와 제출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해주니 등록 후 그에 따라 기한에 맞추어 작성,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letter of acceptance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2. 비자 발급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출국 전에 미리 비자(비자 D)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사이트를 통해 직접 테어민을 잡아 방문 후 비자 발급 요청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자 발급 대행사를 통해 예약, 방문 후 비자를 발급 받는 것입니다. 비자 발급 대행사를 이용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이 적게 소요되나 추가적인 대행 비용(약 50000원 정도)이 발생하기에, 여유롭게 준비(최소 두 달 전)하셔서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에 직접 제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 경우에는, 살짝 늦게 준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학기 시작 이후에야 대사관 테어민을 잡을 수 있었기에 대행사를 이용하였습니다.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행사의 경우 일주일 정도 소요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요구되는 서류로는 여권, 여권용 사진, 항공권 예약 확인증, letter of acceptance, 은행 잔고 증명서, 의료 보험 가입 증서, 기숙사 계약서, 영문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대사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대사관에 비자 테어민을 먼저 잡고, 일정을 기다리는 동안 항공권 예매, 기숙사 계약, 의료 보험 가입 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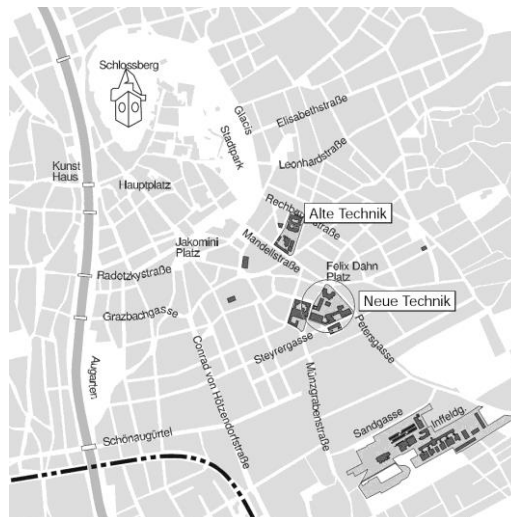
### 2.3. 기숙사 계약

비자를 받기 위해서나, 현지 생활을 위해서나 어쨌든 머물 곳을 찾아야 합니다. TU graz의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외부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운영하는 기숙사 업체는 OEAD, WIST 등이 있고, 저는 OEAD의 2인 플랫폼으로 계약 했습니다. 다른 업체보다 월세가 조금 더 비싸기는 하지만 2주에 한 번 플랫폼 청소를 해주고, 메일 답장이 매우 빠르고, 피드백이 상당히 좋다는 장점이 있어 선택했습니다. OEAD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는 moserhofgasse(모저호프가세), neubaugasse(노이바우가세), steyrgasse(슈타이러가세) 등이 있습니다. Moserhofgasse는 Inffeldgasse 캠퍼스와 매우 가깝다는 장점이 있고, 비교적 신축이고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제가 이곳에 거주했었는데, 시끄럽게 노는 것도 좋지만 조용히 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는 아주 만족했습니다. steyrgasse는 Neue Technik, Alte Technik 캠퍼스와 가깝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에 가 본 적이 있었는데 오븐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Neubaugasse는 캠퍼스들과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나 철도가 다니는 중앙역과 가까워 다른 도시로 여행을 떠나기 조금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하에서 매일 같이 파티가 열려 잠을 방해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적인 거리의 경우에는 트램을 타고 다니면 크게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각자에 맞는 거주 환경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숙사 계약 역시 늦게 청약하면 원하는 기숙사에 배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니 미리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청약은 OEAD 웹사이트를 통해 하실 수 있고, 구체적인 계약은 업체와 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진행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의 경우 은행 해외송금 등을 이용하실 수도 있으나, OEAD의 경우 카드 결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결제할 수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계약한 moserhofgasse의 경우에는 2인 플랫폼 방 하나 월세가 465유로로 65만원 정도입니다.

### 2.4. 캠퍼스

TU graz 내에는 총 3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Alte, Neue, Inffeldgasse라고 하는데, 지도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Alte technik에서는 건축 전공 위주로 수업합니다. 대부분 교환학생 행사는 여기서 열립니다.
  - Neue technik에서는 생명과학, 화학 위주로 수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Inffeldgasse에서는 화학공학, 컴퓨터공학 등의 전공 수업을 합니다.
- 다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OT를 차차 진행하면서 어디서 수업을 듣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학기 중 생활 관련

#### 3.1. 거주등록(anmeldung) 및 해지(abmeldung)

처음 기숙사에 입주하게 되면, 오스트리아 법에 따라 그라츠 관청(동사무소 느낌)에 신고하고 거주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OT나 기숙사 업체 등을 통해서 거주등록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학기가 모두 종료되고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에는 마찬가지로 거주등록을 해지하셔야 합니다. 혹시 모르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기숙사 보증금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주등록과 해지는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3.2. 교통

그라츠 내에서는 버스와 트램이 주요한 교통수단입니다. 다만, 학교 캠퍼스, 기숙사, 중앙역 등을 연결하는 가장 편하고 빠른 수단은 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1유로짜리 티켓을 1회 구입하면 그라츠 지역에서 2시간 동안 모든 대중 교통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1일권(24시간)이 있습니다. 또한, 탑티켓이라고 180유로에 (제가 알기로) 1년 동안 그라츠가 속해있는 주인 슈타이어마르크 주의 모든(기차, 트램, 버스) 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팝니다. 다만 탑티켓의 경우 구매 기간이 정해져있고 또한 여행을 많이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잘 계산하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라츠 내 모든 트램은 jakominiplatz(환승 중심구역)과 hauptplatz(중앙광장) 정류장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구간과 양 옆으로 한 정거장 더 포함한 구간은 무료 탑승구간입니다. 즉 어떤 트램이 A - jakominiplatz - hauptplatz - B 순으로 지나간다면, 이 4 정류장은 티켓을 끊지 않아도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전역의 교통에 대해서는 OBB 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출발지와 목적지 입력만 하시면 자동으로 티켓을 찾아주고, 여기에 따라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등록을 통해 티켓 가격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 3.3. 수업

제가 들었던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Chemical thermodynamics :  
기체와 분자 운동에 대한 고찰, 임계점 등에 대해 다룹니다. 각종 열역학적 함수들, fugacity와 같은 개념들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과목이었습니다. 시험의 경우 oral test로, 교수님 사무실에서 면접을 보는 식으로 시험을 보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Energy storage and conversion :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 그리고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식과 기술을 배웁니다.
- Fuel cells and energy storage :  
연료 전지에 대해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여러 종류의 연료 전지에 대한 소개와 그 반응, 장단점과 최신 연구 동향까지 살펴봅니다. 화생공 기준 전기화학 내용이랑 비슷했습니다.

- Particle Technology :  
분체(particle)의 특징과 물리적 거동에 대해서 수학적, 통계적 도구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과목입니다.
- REACH :  
이거는 제 개인적인 흥미 때문에 들었던 과목인데, 유럽 연합 내에서 화학 물질들을 어떤 제한이나 규제 하에서 다루는지, 사용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우는 과목입니다.
- Sustainable Process Technology :  
지속가능한 기술들이 적용되는 화학, 생물 분야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그 원리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시험의 경우 발표 시험으로써, 특정 주제에 대해 자료를 조사하여 ppt로 발표하고 질의응답 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German Intensive Course :  
아무래도 독일어권 국가로 파견을 나가기에 독일어 공부가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수강했습니다. 이 수업의 경우 정규학기 시작 전에 약 한 달 동안 TU graz가 아닌 uni graz에서 열리는 독일어 강좌입니다. 많은 교환학생 친구들이 이 강의를 듣기도 하고, 수업 자체도 활동하는 수업이 많아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금방 친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학점 인정을 거의 안해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 수업들은 정해진 요일에 열리는 경우도 있지만, 불규칙적으로 열리는 수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 주에는 월요일날 수업이었는데 이번 주는 화요일날 수업이라는 식으로... studo라는 앱을 써서 시간표 관리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 시험의 경우 한 학기에 3번 볼 수 있는데, 그 중 한 번만 통과하면 나머지 시험은 응시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제게 비교적 쉽게 느껴졌던 과목들이나, 발표 과목은 학기 초에 미리 응시하고, 조금 어려운 과목들은 뒤로 보내 집중하는 식으로 학기를 보냈습니다.

### 3.4. 준비해 가면 좋은 것들

저 같은 경우는 자취할 때에도 집에 뭐가 없어도 꾸역꾸역 잘 살아남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옷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가고, 밥솥 같은 것도 안 챙기고 그냥 냄비밥을 아예 해 먹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 생각에 있으면 정말 좋은 것들은 **젓가락, 칫솔/치약/폼 클렌징 같은 개인 위생/미용 도구, 양말, 상비약, 수건, (욕실) 슬리퍼** 정도 인 것 같습니다. OEAD 기숙사를 쓰는 경우 대부분의 주방 용품을 제공해주고, 근처에 생활용품들을 굉장히 싼 가격에 파는 TEDI(테디) 마켓이 있어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밥솥은 제공해주지 않기는 하나 willhaben이라고 하는 현지 당근마켓 같은 앱이 있어 이곳을 수소문하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블로그 등에 교환학생 준비물품 등이 엑셀 파일 같은 걸로 올라와 있는데,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카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갖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는 트래블 월렛 카드를 정말 많이 애용했습니다. 다만, 오스트리아 내 대부분의 케밥 집들은(\*약 5유로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한 끼 식사가 가능) 현금만 받는 경우가 많아서 현금도 따로 준비해 가시거나 인출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 3.5. 물가

오스트리아의 물가는 일반적인 서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싼 편, 다른 동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비싼 편 같습니다. 식료품의 경우에는 한국보다 훨씬 싸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외식비는 매우 살벌한 편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가 최소 10000원 이상)이기에 저는 주로 재료를 사서 플랫폼에서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그라츠 내에 있는 식료품점은 크게 SPAR, HOFER, RIDL이 있는데요. SPAR의 경우 유기농 원료를 활용해서 생산한다는 특징이 있어 아주 약간 비싸기는 하나, 크게 체감이 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moserhofgasse 기숙사에서는 SPAR가 바로 앞(걸어서 1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SPAR를 정말 많이 애용했습니다. 삼겹살도 파는데 한국에 비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어서 자주 요리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 3.6. 기타 - 연휴, 생활

1학기 파견의 경우 부활절 연휴(3월 말부터 4월 초 약 2주)가 길게 있습니다. 이 때 다들 주변 국가로 여행을 다녀오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때 비엔나, 런던, 프라하를 여행하고 왔습니다. 또 그와 별개로 오스트리아가 유럽의 중앙에 있다 보니 기차나 버스를 타고 다른 국가나 도시로 여행하기가 굉장히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주말을 할애해서 친구들과 근처의 주변 국가들도 많이 여행하면서 재밌고 즐거운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떠난 헝가리 부다페스트 여행

제가 알기로 작년까지만 해도 오스트리아 내 사회보험 가입, 통장 개설이 필수였다고 알고 있었는데, 올해를 기준(2024년)으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필수가 아니고, 권장 사항인데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이미 여행자 보험을 들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사회보험까지 추가로 가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세한 점이나 변동 사항은 출국 후 현지 OT에서 자세히 들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휴대폰의 경우 이심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아예 현지 유심을 사는 것이 훨씬 저렴한데요. 저는 HOFER에서 파는 HOFER 유심을 사서 이용했습니다. 한 달 이용료 약 10유로에 데이터 40기가를 쓸 수 있어서 매우 잘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30기가 정도 이상부터는 사용하는 데이터 양에 따라 조금 더 과금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전은 HOFER 유심을 사면 동봉되는 바코드나 QR코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HOFER 앱에서 카드를 연동해놓고 결제하는 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40기가를 다 써도, 데이터를 추가 구매해서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4. 끝으로

사실 저도 한 학기의 시간 동안 한국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한다는 점이 조금은 두려웠었습니다. 집돌이예다가,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느낌이 아니라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아니면 가기 어려운 소중한 기회이고, 또 하고 후회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그냥 출국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지에 가서는 행사들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친구들을 알게 되었고, 출국하기 전에 했던 걱정과는 다르게 정말 행복하고 소중한 기억들을 많이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운이 좋게도 포스텍 교환학생 친구 한 명과 미국인 친구 한 명이랑도 어떻게 친해져서, 여행도 같이 다니면서 이것저것 서로의 삶에 대해 얘기도 하고 겸사겸사 영어 실력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 다 잘 되었던 것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교환학생을 고민하시고 계신다면 한 번쯤 꼭 지원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 잊지 못할 기억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공과대학 국제협력실, 총동문회 관계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